

언론으로 기여한 최초의 환경인

박노경(朴魯敬) 선생 (끝)

글/사진 : 박 창 근
(본회 고문 / 한국환경보호협회의 회장)

물론, 비유할 바는 못 되지만, 필자도 환경보호의 일을 하기 전에는 박노경 선생님과 같이 언론(신문사 기자로부터, '월간 다리' 편집장 등)에 종사한 탓에 환경계에서 박노경 선생님에 대한 친근감은 남다르다.

지난 호, 이 단에서 박노경 선생님께서 필자의 초기 환경보호 작업을 '사설(조선일보 1977년 5월 13일자)'로 지지해 주신 이래, 자주 '조선일보' 논설위원실로 찾아가 박노경 선생님을 뵈고, 환경문제의 사회적 보편화를 위한 표출에 대하여 의논 드렸다.

그때(60, 70년대)만 해도, 환경문제는 정부와 기업이 가해자적 입장이고, 피해자는 시민이며, 이를 예방 대책하는 곳은 대학의 연구소와 몇몇 학자들의 몫이었던 때라, 환경문제가 단순히 정부나 기업 그리고 전문가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가 가해자이며 또한 피해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했다. 즉, 환경문제의 사회적 보편화에 따른 대책이 중요했던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환경보호 작업에 많은 글(논단, 칼럼, 시론 등)을 썼다. 물론, 박노경 선생님도 언론사 현직에 계시면서 신문 지면에 환경문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처와 시민의식을 역설하셨다.

아마, 이때부터 박노경 선생님이 한 평범한 언론인으로 보다, 환경문제 전문가적 입장의 언론인으로 평가 받지 않으셨나 생각된다. 그리고 1980년 국가 차원의 환경대책을 표방한 '환경청'이 개청되고, 이듬해 건국 이래 처음으로 환경 분야에 '국민훈장'이 수여(권숙표 박사, 노재식 박사, 박노경 선생, 차철환 박사, 필자)되면서 박노경 선생님께서 언론 제보다 환경계에 더 알려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하여간 박노경 선생님은 언론계를 정년퇴임 하신 후에도 그 정확하고도 예리한 필봉으로 환경대책을 위한 글을 지금 까지도 이곳저곳에 써 오고 계신다. 그때마다 필자는 박노경 선생님의 글을 찾아 읽으며, 배움을 이어가고 있는데, 몇 년 전 이용운 씨가 발행하고 있는 '첨단환경'에 쓰신 글은 장문의 논단으로 이제 까지의 '칼럼적' 글에서 전문적 글로의 변환이라고 할 수 있어, 여기에 부분적으로 소개한다.

글은 '21세기 환경경영 시대의 개막을 생각하며'라는 제하로 쓰셨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속가능 발전' 경영의 유용성을 수긍하면서도 이에는 여러 가지 의의(疑義)가 있을 수 있는 것을 의면할 수가 없다. 이를테면 천연자원의 고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미래 세대에게 현재와 같은 환경수준을 물려준다는 것은 곧 현 세대가 천연자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미래 세대의 욕구충족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대대의 욕구를 충족’ 시키려면 기아상태의 개도국들에게는 빈곤 퇴치를 위하여 어떤 내용의 개발이 어느 정도로 용인되어야 하며, 그것을 누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중진국들과 선진국들에겐 각각 어느 정도의 개발(자원 소모와 오염 감축)이 허용되어야 할 것인가. 또한 모든 제조업자들이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높여서 에너지 등 천연자원의 채취량을 줄이고, 물을 아끼며, 이른바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오늘의 대량생산 대량소비라는 경제구조와 그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의 소비생활 스타일을 바꾸지 아니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겠는가. 소비자들의 충동구매에 절대(絶大)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판촉활동(광고와 할인판매)을 그대로 둘 것인가.

.....

과소비를 행복의 잣대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전 세계의 대다수 소비자군(群)의 욕구를 그대로 두고 지구환경의 악화를 얼마만큼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밖에도 시기에 따라 이의는 더 많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

정부는 기업들이 그렇게 하도록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며, 지구환경의 악화와 자원고갈을 얼마만이라도 늦추고 시장경제의 주역인 기업이 국내의 시장에서 살아남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는 국민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케 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인간과 자연의 공생, 개발과 보전의 조화, 환경과 경제의 상생” 등 지속가능한 국가 환경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환경부의 국가환경종합계획(‘2004년 상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에서 발제한 주제)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 개선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얼마 전부터, 박노경 선생님께서는 internet에 몰입하셔서,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좋은 ‘시’ 나, 수필을 써 글 나누기에 여념이 없으시다.

아무쪼록 계속 건강하셔서 좋은 글로 이 나라의 환경보호에 기여하실 것을 후배의 한 사람으로 기대한다. ◀

***정정:**

지난 호 이란에서 서두에 박노경 선생님께서 < ‘조선일보’ 논설위원으로 계실 때, 1997년 5월 13일 자신문에 쓰신 ‘사실’의 일부이다.>라고 한 것은 <...1977년...>임을 정정합니다. -필자-

고문 초청 간담회 및 제 7회 임원연수회

일시: 2001년 4월 21일~22일 장소: (주)파인리조트 주최: 사단법인 전국환경관리인연합회



***사진설명:**

2001년 4월 21일~22일 (주)파인리조트에서 개최한 고문 초청간담회 및 제 7회 임원연수회에 참석하신 박노경 선생님(맨 앞 줄 왼쪽에서 세번째)